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만족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기완\*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과정

김종성\*\*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경영학부, 조교수

## 국 문 요 약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해 일부는 스케일업(scale-up)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일부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다. 스타트업이 창업 이후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창업자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엑셀러레이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용 주체와 내용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CEO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기업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인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CEO의 긍정심리자본 정도에 따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와 IBK창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하였다.

핵심어: 엑셀러레이터, 기업성과, 긍정심리자본, 매개효과 검증

## 1. 서론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해 일부는 스케일업(scale-up)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일부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스타트업이 창업 이후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창업자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

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엑셀러레이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용 주체와 내용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와 IBK창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 주저자,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과정, kwkim6163@naver.com

\*\* 김종성,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경영학부, 조교수, 01041603713@kookmin.ac.kr

## II. 연구 배경

### 2.1. 액셀러레이터 현황 및 내용

액셀러레이터의 시초는 2005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서 Paul Graham이 설립한 Y Combinator이다(배상완이동명, 2022). 우리나라는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19조에 따라 “초기 기술창업자를 선발하여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 보육을 실시하고 초기 기술창업자에 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강달철, 2019)하였고, 이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정의하고 이를 제도화하였다(배상완이동명, 2022). 2010년 국내 최초로 프라이머라는 액셀러레이터사가 설립된 후 2022년말 기준 417개의 액셀러레이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후 활동하고 있고, 2017년 12월에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출범하여 액셀러레이터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비교적 짧은 역사와 운영 형태, 설립 목적 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액셀러레이터의 모습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액셀러레이터는 기존에 장소 제공 및 보육에 초점을 맞춘 창업보육센터나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창업보육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배상완이동명, 2022).

액셀러레이터 업무는 Awareness(인지)→Application(지원)→Program(프로그램)→Demo Day(데모데이)→Post Demo Day(졸업 이후)로 구분된다(Barrethag, 2012). 스타트업에게 액셀러레이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Awareness(인지)’,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아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과정인 ‘Application(지원)’, 선발된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Program(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마친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사업 및 제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Demo Day(데모데이)’, 그리고 프로그램을 졸업한 스타트업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Post Demo Day(졸업 이후)’를 각각 의미한다(권영은, 2022).

모든 액셀러레이터들이 통일화된 활동 범위를 갖고 있지 않고 세부 구성요소들이 각기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 지원 서비스와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은행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창업교육, 멘토링,

분야별 전문가 매칭, 스텝 밀착지원(이상 정성적 요소), 네트워크 구축, 일정기간 참여, 자금지원, 투자유치 지원(이상 정량적 요소)을 하위요소로 채택하였다.

액셀러레이터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멘토링의 경력개발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의 창업성공에 대한 정(+)의 영향(김경수, 2018), 액셀러레이팅의 정량적 요소(시드투자, 후속투자, 사업연계)와 정성적 요소(멘토링, 분야별 전문가)의 기업성공에 대한 정(+)의 영향(강달철, 2019),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의 창업기업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 영향 및 핵심역량의 경영성공에 대한 정(+)의 영향(김진한 외, 2020),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네트워크의 창업성공에 대한 정(+)의 영향(김상철, 2022), 기술역량, 조직역량과 비재무적성과와의 관계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권영은, 2022), 액셀러레이팅의 투자자 네트워크 및 자금지원의 경영성공에 대한 정(+)의 영향(김영범, 2023) 등을 검증하며 액셀러레이터가 기업성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2.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사람의 마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인간의 긍정 행동을 지원하며, 긍정심리자본의 역량을 조직에서 지원하여 구성원을 관리할 때 기업과 조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점이다(배미아, 2021). 2000년대 초반 긍정심리자본을 처음 제안한 경영학자 Luthans(2002)는 긍정심리에 자본의 개념을 도입한 긍정심리자본이 인간에게 필요한 기존의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을 이어주는 무형의 자본이며, 당신이 누구인가(‘Who you are’)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을 넘어서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Luthans et al., 2004).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 조직행동이론과 조직관리 개발에 관련된 긍정성 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태적 심리자원이며, 하위요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임태홍, 2014).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Bandura, 1997), 희망은 ‘목표 지향적 에너지와 목표에 맞는 계획을 추구하는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Luthans & Youssef, 2007), 낙관주의는 ‘좌절과 난관에 도 불구하고 미래에 자신의 삶은 궁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신념’(Seligman, 1998), 회복탄력성은 ‘실패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뛰

어넘는 역량'(Masten, 2001)이다.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낙관주의의 청소년 기업가적 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배미아, 2021),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장현철, 2021),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교육, 멘토링과 창업성과 사이에서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김상철, 2022), 소상공인의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의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김나경, 2018), 긍정심리자본 중 회복탄력성의 창업의지에 대한 긍정적 영향(임진혁 외, 2021) 등을 검증하여, 긍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적 의도, 창업의지, 기업성과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장하였다.

### 2.3. 기업성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코호트(기수) 기반으로 멘토링 및 교육을 제공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공개 피치 이벤트인 데모데이를 갖고 종료되는 특성을 갖는 프로그램'(Cohen & Hochberg, 2014)인 점을 감안하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성과측정이 필요하다. 기업성과의 측정은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업성과의 측정 항목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기 기업의 성과측정에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지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주로 재무적성과 지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균형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회계적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재무적성과(이성제, 2019)와 기업성과에 대한 종합적, 포괄적 성격의 비재무적성과(Steers, 1997)를 모두 측정하되,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주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한다. 재무적 성과 지표로 매출액 증가율, 자산증가율, 시장 점유율, 수익률, 자금흐름, 고용인원을 채택하여 측정하고, 비재무적성과 지표로 회사 인지도, 수요처 확보 능력, 브랜드가치, 신제품·서비스 개발 능력, 고객 만족도, 직원 만족도를 채택하여 측정한다.

## III. 연구방법

###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통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참여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김경수, 2018; 강달철, 2019; 김진한 외, 2020; 김상철, 2022; 정재영, 2022; 김영범, 2023), 긍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적 의도, 창업의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나경, 2018; 최진숙 외, 2020; 임진혁 외, 2021; 배미아, 2021; 장현철, 2021), 창업자기효능감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교육, 멘토링)과 창업성과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김상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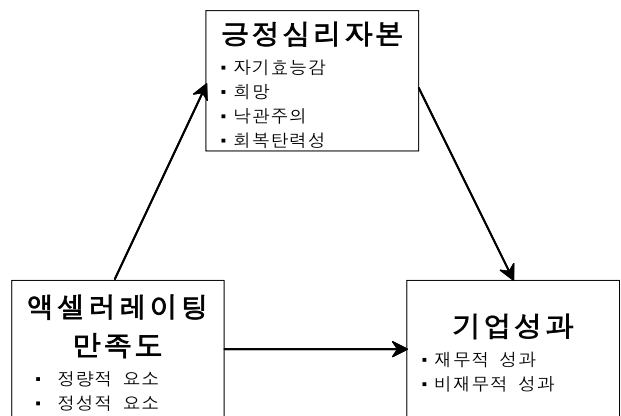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만족도(독립변수)가 기업성과(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1>,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스타트업의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스타트업의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때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연구대상

액셀러레이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액셀러레이터의 역량 또는 프로그램 질적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핵심역량이나 CEO의 특성 차이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팅의 효과가 기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에서 찾고자 한다. 즉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CEO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은 각기 다르게 마련이며, 액셀러레이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기업 성장단계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의 유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와 IBK창공에 참여한 스타트업으로 하였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공모를 통해 유수의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위탁사업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액셀러레이터의 역량 및 프로그램 질적 수준 차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 참고문헌

강달철(2019).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권영은(2022). *스타트업 핵심역량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경수(2018). *창업가역량이 액셀러레이터의 멘토링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연구: 신용보증기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나경(2018). *소상공인의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김상철(2022).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의 창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김영범(2023). *액셀러레이팅과 기업가정신이 참여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김진한·조진형·이세재(2020). *창업가역량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술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창업기업 역량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3(1), 132-142.

배미아(2021).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긍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만족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배상완·이동명(2022). *AHP 기법을 이용한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 의사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 127-140.

이성제(2019). *창업멘토링이 창업기업의 창업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임진혁·권혁(2021).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6(6), 189-216.

임태홍(2014).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K-PPC) 타당화 검증, 코칭능력개발지*, 16(3), 157-166.

장현철(2021).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정재영(2022). *스타트업 지원 정책 효과 비교연구: 지원대상 및 지원수단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최진숙·황금주(2020). *예비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과 공적 자의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7(1), 15-47.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Cohen, S., & Hochberg, Y. V.(2014). *Accelerating startups: The seed accelerator phenomenon*.

Luthans, F.(2002).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16(1), 57-72.

Luthans, F., Luthans. K. W., Luthans, B.C.(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105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Seligman(1998). *Learned Optimism*, New York: Pocket Books.

Steers, R. M.(1977).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behavioral view*. Goodyear Publishing Company.